

# 주부의 ‘일상적 살림살이’에 관한 연구\*

Full-Time Housewives' Everyday Domestic Care Activity

광주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 수 김 선 미\*\*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 수 이 기 영

Dept. of Family welfare,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 Kim, Seonmi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Lee, Ki-Young

## 〈목 차〉

- |                         |                                               |
|-------------------------|-----------------------------------------------|
| I. 전업주부에 관한<br>문화기술지 접근 | V. 전업주부의 소비행위                                 |
| II. 정보제공자 면접            | VI. 결론 ; 전업주부들의 일상적<br>살림살이에서 보이는<br>공통점과 차이점 |
| III.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 참고문헌                                          |
| IV. 전업주부의 재무관리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ethnography is to describe and analyse the Korean full-time housewives' everyday domestic cares. For this purpose. The 11 full-time housewives in their thirties and forties from the middle class were interviewed with an unstructured questionnair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full-time housewives interpret their domestic cares as including housework, financial management and consumption behavior. They have heavy responsibility to fulfill the routine housework, squeeze their financial resources and balance their family consumption and their own consumption. So, their every day life has its own uniqueness different from their counter partners' - husband's and employed married woman's. But even among full-time housewives,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all these three activities of domestic cares.

\* 이 연구는 2006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주저자, 교신저자 : 김선미 (yupy1005@hanmail.net)

**Key Words** : 살림살이(domestic cares), 가사노동(housework),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소비행위(consumption behavior),  
전업주부(full-time housewife)

남편: 여보, 하루 종일 글이 한 줄도 안 써져서 너무 힘들었어.

아내: (애보고, 청소하고, 장보고, 요리하느라 줄린 눈을 비비며) 예고, 너무 고생했네요. -어느 작가 남편과 아내의 대화

마리 테레스 크리츠-렐린 엠클(2005:48)

## I. 전업주부에 관한 문화기술지 접근

이 연구는 주부의 '일상적 살림살이'에 관한 연구이다. 전문적 직업 활동에 몰두하는 남편을 쉬게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전념하는 가정 관리자인 주부가 중심이 되는 핵가족이 현대의 이상적 가족(조혜정, 1997; 55)으로 대두하지만, 그러나 현대세계의 물질적 기초와 관계적 기초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연구에서 소외계층이 되어온 전업주부 그리고 전업주부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총체적<sup>1)</sup> 접근은 드물다. 이 연구는 전업주부의 일상생활 가운데 소위 살림살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주목한 문화기술지의 성격을 가진다. 살림살이라고 하는 영역에 주부들은 가사노동과 재무관리 그리고 소비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물론, 여성취업의 증가와 더불어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 비교분석되기도 하고, 여성노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연구자들에 의해 전업주부의 무임의 가사노동의 성격과 가치가 다루어 진 역사는 길다. 그러나 일반화에 목적을 둔 실증주의적이고 양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가사노동과

관련된 복잡한 요소들이 불가피하게 간결히 통제된 채 다루어졌다.

또한 주부의 가사노동에 어떠한 요소들이 포함될 것인가에 관한 논리적인 개념정의도 상당히 복잡하게 진전되어 왔다. 재무관리란 주부의 가사노동 범주에 포함되는 정신적인 노동에 해당한다. 가정학의 전공이 더욱 세분화됨에 따라 재무관리역시 따로 떼어 다루어졌다. 소비행위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전업주부들의 소비행위는 주로 충동구매나 구매충동과 같은 의지의 질병측면에서 그리고 특정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구매행동에 초점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전업주부의 생활세계를 알려주는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최대한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살림살이 행위를 기술하고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전업주부의 생활세계에 관한 문화기술지로서 이 연구 역시 내부자의 관점(emic)과, 학문의 관점에서 인간생활에 대한 연구자의 시각에서의 해석인 외부자의 관점(etic)(Creswell 저, 2005: 86)을 통합한다.

요컨대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소위 '그들의 눈'을 통해 본 가사노동과 재무관리 및 소비행위에 걸쳐 주부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살림살이는 어떠한가?」로 III,IV,V세 장에 걸쳐 당사자들이 전해준 내용을 기술하고 분석하며, 결론의 장인 VI장에서 '연구자의 눈'으로 이와 같은 전업주부의 일상생활 속 살림살이를 해석하여 학문의 세계로 연구결과를 환원

1) 총체적이라는 것은 문화기술지 연구자가 문화적 체계나 사회적 집단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기술하고자 하며 이는 집단의 역사 종교 정치 경제 환경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John.W.Creswell 저, 조홍식 외 역, 2005).

하고자 하였다.

## II. 정보제공자 면접

### 1. 연구방법 및 절차

여성을 연구할 때 여성주의 문화기술지와 같은 질적 방법론이 적절한 이유는 여성-행위자의 입장에서 행위자의 삶을 구성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 낼 수 있다는 점(윤택립, 2002: 203-204)과 보다 복잡한 삶의 양상을 개방적인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조용환, 1999:20)을 들 수 있다. 기혼여성이면서 가정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전개하는 주부에 대한 이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해 당사자의 경험과 해석 그리고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은 심층면접을 주로하되 제보자가 가정에서 실시하여 제한되지만 참여관찰의 효과도 얻고자 하였다. 전업주부의 문화적 세계에 대한 주요 제보자로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30·40대 전업주부로 하고, 소득의 획득을 위해 취업을 해야 하는 부담에서는 벗어나 있는 전형적인 중산층으로 제한하였다. 면접은 Spradley(이희봉 역, 1996:37-53)의 발전식 연구 사이클에 따라 전업주부들의 삶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대강의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시작하고 「자료수집 및 기록→자료 분석과 보고서 작성→이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면접 과제를 선정하는」 사이클을 반복하였다.

면접대상은 기꺼이 면접에 응하고자 하며 이야기하기를 즐기고, 통상적인 전업주부의 언어를 구사하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면접은 먼저 전화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승낙을 얻어 시간약속을 한 후, 제보자의 집에서 실시하였고 녹음기로 모든 면접내용을 녹취하여 전사한 뒤 분석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03년

4월부터 2003년 9월 사이에 이루어 졌는데, 추가적인 자료나 면접 자료의 녹취과정에서 재확인할 일이 있는 경우 전화면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면접은 한 제보자당 2회에서 3회 실시하였고, 면접시간은 대부분 1시간 반에서 세 시간을 넘지 않았으나 제보자가 이야기에 몰두한 한 사례의 경우 여섯 시간이나 소요되기도 했다.

처음 면접에서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생애사와 현재시점의 생활을 묻는 포괄적인 질문과 응답으로 면접이 진행되었고, 두 번째 면접에서는 일상생활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통상적인 한 주일간의 시간표를 함께 작성하거나 한 달간의 지출내역을 함께 기록해 보았다. 제보자들은 살림살이를 주부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고 있었으나 객관적 여건이나 주관적 시각에 따른 차이점은 전업주부들의 일상생활세계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 2. 제보자의 개인적 특징

전체 면접자는 모두 열 네 명인데, 그 가운데 세 명은 취업주부로서 전업주부의 문화세계에 대한 뚜렷한 특징을 구별해내기 위한 대조집단이 되어주었다. 결국 이 논문의 분석대상이 된 전업주부는 모두 열한 명으로 제보자들의 개인적 특징은 익명을 사용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연령은 36세에서 46세까지이며 30대 후반이 여섯 명이고 40대전반과 중반이 다섯 명이다. 면접 당시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자녀들의 나이는 3세부터 대학교 1학년생인 20세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학교에 가기 전 자녀만 가진 제보자가 고현정 씨와 이유재 씨 그리고 정하진 씨이다. 또한 초등학교 자녀만 둔 제보자는 이정민 씨와 최현지 씨 그리고

김미현 씨 및 강현선 씨와 심희경 씨이다. 그 밖에 서진화씨는 대학생자녀와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고, 양선희씨는 고등학생 자녀와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 또한 윤미숙 씨는 중학생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 학력은 지방소재 상업고등학교 졸업이 두 명, 대학중퇴가 한 명, 지방소재 4년제 대학졸업이 세 명 그리고 나머지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졸업이 다섯 명이다. 결혼연령은 24세부터 27세가 보편적이고 31세와 37세가 각각 한 명이다. 전업주부가 된 경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취업경험이 없이 전업주부가 된 경우는 정하진 씨와 고현정 씨, 그리고 최현지 씨와 김미

현 씨 서진화 씨이다. 둘째, 결혼 전 취업했다가 결혼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하여 전업주부가 된 경우는 심희경 씨, 윤미숙 씨, 이정민 씨, 강현선 씨가 있다. 그러나 결혼 전에 직장을 떠난 이 네 제보자와 달리 양선희 씨와 이유재 씨는 결혼 후에도 각각 교사와 방송국 작가로서 취업을 계속했지만 ‘출산과 양육부담을 피하지 못하고’ 취업을 중단한 경우이다. 양선희 씨는 남편의 강요로 교사직을 떠나 취업을 중단한 경우로 결혼생활 내내 두 자녀를 기르는 교육자로서 거듭나고자 안간힘을 쓴 경우이다. 이유재 씨는 자신의 존재감을 취업을 통해 확인한 경우인데, 양육자인

〈표 1〉 제보자의 특성

이름	연령	학력	결혼 연령	자녀 성별 (연령, 학교)	취업경험	남편의 직업(연령)
서진화	46	신학대학	25	딸(20세/ 대1) 아들(14세/ 중2)	없음	외국인회사 사장(49)
이정민	39	대학 중퇴	26	딸(12세/ 초6) 아들(10세/ 초3)	건축회사사무직(결혼 전)	건축회사 팀장(43)
최현지	41	대학 졸업 식품영양학	27	딸(10세/초3) 딸(8세/초1)	없음	증권회사 과장(43 )
양선희	42	대학 졸업 수학교육과	25	아들(16세/ 고1) 아들(14세/중2 )	중등교사(출산으로 그만둠)	치과의사 (42)
김미현	38	여대 졸업 경제학	26	아들(11/ 초4) 아들(8/ 초1)	없음	전문대학교수 (42)
고현정	37	여대 졸업 수학과	31	딸(6세/ 반일제미술학원)	없음(남편 실업중 과외교사 1년)	건설회사 직원(37)
이유재	43	대학 졸업 국문과	37	아들(6) 아들(4)	방송국작가(2남출산까지)	사내벤처 부장(44)
강현선	36	여대 졸업 불문과	25	아들(10세/ 초3)	항공사공항근무(결혼전 3년)	치과병원장(37)
윤미숙	43	고졸	27	딸(16세/ 중2) 딸(15세/ 중1) 딸(10세/ 초3)	반도체마케팅회사7년근무 (결혼과 동시에 그만둠)	영세소기업 사장(46)
심희경	36	고졸	24	딸(10세/ 초3) 딸(12세/ 초5)	반도체회사 생산직2년 / 일반회사 총무일 2년	통신회사 차장(39)
정하진	38	대학 졸업 기악전공	26	딸(6세/ 유치원) 딸(3세)	없음	가정의학과 의사(43)

시아머니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취업을 중단하고 양육을 전담해 왔다.

남편의 직업은 치과의사, 가정의학과 의사, 외국인 회사 사장, 영세 소기업 사장, 건축회사 팀장, 증권회사 과장, 전문대 교수, 건설회사 직원, 통신회사 차장, 사내벤처 부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남편의 직업은 퇴근시간 후 아내나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성격과 양에 영향을 주고, 또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물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소득과 그 전망에 영향을 준다. 건설회사 직원이나 팀장 그리고 증권회사 과장 전문대 교수는 월평균 3백만원정도의 수입을 가져오고, 사내벤처부장은 월 5백만원정도 그리고 외국인회사 사장과 소기업 사장은 월 7백만원에서 1천만원정도, 그리고 개업의는 최소 8백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수입을 가져온다. 흥미로운 사실은 수입이 증가할수록 아내가 통제할 수 있는 비율이 낮았는데, 월 소득 3백만원인 모든 가계에서는 총수입을 아내들이 관리하지만, 월 소득이 높은 정하진 씨는 남편수입 1천만원 가운데 약 2백만원 정도를 살림하는데 사용하였고, 박현선 씨의 경우 남편 수입 2천만원 가운데 4백5십만원을 받아 살림비용에 충당하였다. 두 경우 모두 나머지 돈은 남편들이 관리하며 재테크도 남편이 주도하였다.

### III.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동일한 대상을 놓고 “인간관계를 가리킬 때 어머니, 아내라는 말을 쓰고, 가족의 소유물과 음식 포함한 물리적인 유지를 가리킬 때 가정주부라는 단어를 쓴다”(레이 안드레, 1987:72). 즉 이 두 가지는 서로 중첩된 영역을 공유하지만 용어의 저변에는 상호 다른 신념체계가 작용하는데, 같은 글에서 레이 안드레는 가정주부라는 말이 정서적인 감정까지 포함하므로

‘일’을 강조하는 가사노동자라는 말을 쓰도록 추천하고 있다. 즉 살림살이 영역에서 전업주부는 가사노동자라는 정체성을 가진다.

제보자들의 생활시간표와 자산형성의 역사를 포함한 면접자료를 분석해 볼 때 전업주부는 ‘살림살이’를 당연한 의무로서 일상적으로 수행하였다.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분석해 볼 때, 살림살이에는 가사노동과 재무관리 그리고 구매와 관련되는 소비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제 살림살이의 각 영역에서 전업주부는 어떤 경험을 하는가 살펴보자.

먼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살펴보자. 전업주부들의 물리적 생활환경을 먼저 살펴보면, 제보자 가운데 아홉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둘은 주상복합건물에 살고 있다<표 2>참조. 전세를 사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가정이 실내를 ‘리모델링(remodeling)’하였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유사한 내구재들을 가지고 있다.

제보자들은 자녀의 등하교시간과 사교육시간을 생활시간의 주요 축으로 삼고, 사이사이 시간을 내 가사노동을 한다. 전업주부는 주로 오전에 청소와 빨래와 설거지를 하는데, 어린 자녀를 둔 경우 매일 무거운 가사노동부담을 가지고 있다. 학교에 가기 전인 두 아이를 가진 이유재 씨는 집을 치우고 빨래를 하는 것이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현정 씨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보내고 나서 한 잠 자서 충전한 다음 가사노동을 두 세 시간하고 나면 힘이 들어서 양푼밥을 먹는다”고 한다. 고현정씨는 가사노동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다고 생각되면, 그 때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신문도 본다고 하였다. 자녀의 나이가 어리지만 남편의 소득이 높은 정하진 씨는 주 5일씩 오전에만 오는 파출부가 청소와 빨래와 설거지를 하고, 자신은 세살난 아이를 데리고 교회모임에 가거나 산책을 간다.

반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가사노

동 하는 날을 따로 정해서 할 수 있게 된다. 심희경 씨는 월요일에 하루 종일 가사노동을 하는데,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아주 기분이 좋다”고 한다. ‘미완의 과제를 안고 외출하는 것보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데에서 찾는 기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강현선 씨는 매일 오전에 파출부가 오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몸이 아파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라고 한다. 의사인 남편을 둔 강현선 씨는 한 동네에 사는 남편친구의 부인들과 한 명의 파출부를 ‘돌아가면서’ 쓴다. 자녀들이 커서 집을 어지르지 않고 또 교회활동으로 바쁜 서진화 씨는 ‘토요일에 몰아서’ 가사노동을 한다.

가사노동의 표준설정에서 전업주부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진다. 고현정 씨는 주말을 잘 보내기 위해 완벽한 대청소를 한다. 그러나 이정민 씨의 경우에는 “자꾸 미뤄놓았다가 한꺼번에 하느라고 힘이 든다”고 하면서 자율성에 수반되는 자기통제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윤미숙 씨는 아이들 사교육관리와 교회활동

그리고 시장보기 등으로 너무 일이 많아 ‘대충대충 하고 설거지도 쌓아두었다가’ 한다.

연구자: 청소 설거지 이런 일이 힘들거나 싫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정민: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편하게 생활을 하는 거죠. 하고 싶을 때 하고, 밀어 놓기도 하고. 그냥 뭐 막 철저히 해야 된다고 그런 거는 아니고.

전업주부에게 청소와 빨래 그리고 설거지는 서로 묶여져서 한 가지 일이나, 밥 하는 일은 따로 구분되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평소 밥 잘 먹는 것’을 강조하는 김미현, 최현지, 이유재 씨 등은 ‘밥하는 것이 힘든 일여서 주말에는 쉬고 싶고 그래서 가족단위의 외식을 한다’고 한다. 주중에는 밥하는데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고현정 씨도 주말에는 남편의 요구에 따라 밥을 하게 되는데 주중에 밥을 잘 안 해먹었기 때문에 또 다시 외식을 하게 된다고 한다.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몸이 좋지 않은’ 강현선 씨는 “밥도 잘 하기 싫어서 아이가 인스턴트를 많이 먹어 미안하다”고 하였는데 아이가 상당히

〈표 2〉 전업주부 제보자들의 주생활 조건

제보자	주거 형태	주거 공간
서진화	대치동 고층 아파트	( 42 )평/방(4),거실,화장실(2)개, 부엌, 다용도실, 베란다
이정민	목동 고층아파트	( 27 )평/방(2),거실,화장실(1)개, 부엌, 다용도실, 베란다
최현지	압구정동 고층아파트 전세	( 27 )평/방(2),거실,화장실(1)개, 부엌, 다용도실, 베란다
양선희	목동 고층아파트 전세	( 35 )평/방(3),거실,화장실(1)개, 부엌, 다용도실, 베란다
김미현	압구정동 고층아파트	( 35 )평/방(3),거실,화장실(1)개, 부엌, 다용도실, 베란다
고현정	목동 고층아파트 전세	( 27 )평/방(2),거실,화장실(1)개, 부엌, 다용도실, 베란다
이유재	개봉동 고층아파트 전세	( 33 )평/방(3),거실,화장실(1)개, 부엌, 다용도실, 베란다
강현선	목동주상복합아파트	( 54 )평/방(4),거실,화장실(2)개, 부엌, 다용도실, 베란다
윤미숙	잠원동 고층아파트 전세	( 47 )평/방(4),거실,화장실(2)개, 부엌, 다용도실, 베란다
심희경	목동 고층아파트	( 27 )평/방(2),거실,화장실(1)개, 부엌, 다용도실, 베란다
정하진	목동 주상복합건물 전세	( 48 )평/방(3),거실,화장실(2)개, 부엌, 다용도실, 베란다

비만했다. 또한 강현선씨네는 남편은 '아침밥을 잘 안 해준다'고 하고 강현선 씨는 '안 먹으니까 안 해준다'고 하여 아침밥을 높고 다툼이 있다고 한다. 심희경, 이정민, 윤미숙, 양선희 씨는 요리를 잘 하는데, 이들의 공통된 철학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 외식과 비교해서 깨끗하고 재료값이 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제보자들은 주말에 외식보다도 가정에서 하는 가족단위 식사를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 제보자들은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자신의 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관한 한 남편이야기가 없다. 제보자들의 가정에서 남편들이 가사에 관여하는 경우는 '어린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성장한 아이들과 함께 운동을 하러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이유재 씨는 어린 아이 둘과 집 주변에서 맴돌다보니 '일상이 힘이 들지 않으면 되는데 아주 힘이 들 때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의 늦은 귀가가 짜증이 난다'고 한다. 정하진 씨는 '가사노동은 전업주부의 일'임에도 파출부로 대체하고 있다. 가사노동이 전업주부로서는 당연한 임무라는 인식은 부부에게 공통된다. 정하진씨의 남편은 가끔 '이 집은 좁은 편인데 하진이가 청소하기에는 넓지'라면서 비아냥댄다. 정하진 씨는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 여행을 가기위해, 자신이 할 일을 대신하고 돈을 받아 가는 파출부를 잠시 쓰지 않고 그 아낀 돈으로 여행을 갈까도 생각한다.

가사노동은 전업주부의 당연한 의무로서 표준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힘이 많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사회적 지위도 낮고(서선희, 1997), 가사노동이 유일한 노동이 되는 전업주부의 정체성유지도 어려워진다.

#### IV. 전업주부의 재무관리

제보자들이 재무관리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방법은 우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손으로 하는 방식'에서부터, '구매하는 물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비교하여 구매하는 것', 혹은 '무료 샘플을 주워 모으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제보자들은 대부분 가구집기를 살 때 '싼 곳을 찾고자 할인점들을 여러 군데 비교하고 다녔다'고 한다.

재무관리는 가사노동과 달리 제보자들 모두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일본의 경우 도시 봉급생활자 남편 중 90%이상이 월급전액을 부인에게 넘겨주지만, 우리나라 도시중산층의 경우 주부가 봉급을 관리하는 경우는 그보다 떨어져 76.5%정도라고 한다(문옥표, 1996). 이 연구에서 제보자들은 '남편의 월급을 모두 관리하는 경우'가 일곱 명이고, '총소득은 남편이 관리하고 생활비만 타서 쓰는 경우'가 세 명 그리고 '공동의 비밀장소에 돈을 넣어두고 그냥 가져다 쓰는 경우'가 한 명이었다.

부인이 재무관리를 하는 경우로, 결혼초기부터 부인이 관리한 고현정 씨, 김미현 씨, 이정민 씨, 심희경 씨, 서진화 씨가 있다. 그 가운데 김미현 씨는 현재 자산을 대부분 친정에서 물려준 경우인데, 남편은 월 300만원 정도의 월급 가운데 120만원을 자신의 용돈으로 다시 가져간다. 최현지 씨의 경우에는 남편이 재무관리를 하다가 재테크에 실패하자 아내에게 넘겨준 경우이다. 양선희 씨의 경우는 처음에 아내의 수입으로 생활하였지만, 자신의 수입이 생기자 아내의 취업을 중단시키고 금전지출에서 양선희 씨를 '감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내가 '가출하겠다'고 하자 아내에게 '경제권'을 넘겨준 경우이다. 양선희 씨의 경우

는 재무관리권을 둘러싼 부부간의 조정과정이  
그야말로 ‘투쟁’임을 보여준다.

연구자: 돈은 다 맡겨주세요?

양선희: 돈은 맡긴 게 맡겨줄려고 해서 맡겨  
준 게 아니라 ‘나 안 살고 나갈게.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그러고 ‘내일 나갈게’ 그러  
니까 그날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연구자: 그러면 그 전에는 타서 쓰셨어요?

양선희: 예, 이제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런데  
내 남편도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내가 돈을  
너무 잘 쓰니까. 왜냐 하면 처음에는 내가 먼저  
생활권이 있었잖아. 우리 남편이 타서 썼는  
데..... 그 전까지는 한번도 입이 간지러워서 말  
을 안 했나 몰라.....자기는 내가 벌은 돈이 아  
니라 자기는 아무 말도 못했는데, 너무 너무 나  
는 돈을 너무 쉽게 쓴다는 거야. 근데 내 돈  
217만 얼마를 받으니까 이제 규모 있게 써 버  
리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감시가 들어오는 거  
지 쉽게 말하면.....그래도. 그러다가 안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남편이 좋아서 준 것이 아니라 자  
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나갈 것 같  
으니까

남편이 총소득을 관리하는 경우는 대부분  
소득이 높은 경우이다. 윤미숙 씨의 남편은  
중소기업사장으로 월 1천만원 정도를 받고 있  
으며, 강현선 씨 경우에는 최근 갑자기 병원이  
잘 되어 월 2천만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  
다. 윤미숙 씨는 남편 소득의 반(半)을, 강현  
선 씨는 남편 소득의 1/4을 ‘생활비’로 관리하  
고 있다. 이 두 경우 남편은 보험이나 저축  
그리고 자동차나 기타 ‘큰 돈’을 관리한다. 이  
유재 씨의 경우에는 사내 벤처 팀장인 남편의  
직업특성상 소득이 다시 투자가 되고 있어서  
월 1백만원의 생활비를 정해서 타서 쓰고 있  
지만, 이유재 씨는 “제가 알뜰해서 이 돈도  
남아요. 생활비를 달라고 하지 않은 달도 많  
아요”라고 말한다. 이유재 씨는 남편 소득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생활비를 남편  
에게서 타서 쓰는 제보자는 대부분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 이유재 씨는 자신이 번 1억원을  
그리고 강현선 씨는 계를 해서 모은 2천만원  
을 비자금으로 가지고 있고, 주로 친정에 일  
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다고 하였다.

정하진 씨의 경우에는 매일 들어오는 현금  
소득을 공동의 비밀장소에 놓고 쓰는 유일한  
제보자인데, 월 1천만원정도 수입 가운데 정  
하진 씨가 관리하는 돈은 2백육십만원 정도이  
다. 남편은 주로 선물(先物)이나 주식투자 등  
을 하고 있고, 아파트청약당첨을 통해 부동산  
에 투자하는 일에 돈을 쓴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소득을 관리하는 제보자는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무겁다’고 하면서 재  
테크에 대한 부담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 가  
운대에 최현지 씨와 김미현 씨는 현재 월 3백  
만원 정도 하는 남편의 수입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압구정동의 생활수준을 따라가기가 힘들  
다고 한다. 이에 최현지 씨는 이러한 수치 불  
균형을 ‘가끔 나오는 보너스’로 메워나가고 있  
으며, 김미현 씨는 친정에서 받은 현금을 은  
행에 맡겨 받는 이자와 친정에서 사 준 아파  
트를 세놓아 월세를 받아 메워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심희경 씨나 서진화 씨, 이정민  
씨는 재무관리를 통해 집을 산 경우이다. 심  
희경 씨는 매번 ‘간 크게’ 현재 수준보다 한  
단계 높여 전세를 구하거나 집을 사서 값이나  
가는 식의 재테크를 구사했다.

연구자: 이 집 살 때도 힘을 합해서 사신 거  
예요 아니면 심희경 씨께서 주도 하신 거예요?

심희경: 저희 남편은 겁이 나서 이런 것을 잘  
시도를 못해요. 좀 아주 좀 신중한 사람이거든  
요. 무조건 내가 밀어 부쳐 가지고 사자고 그랬  
죠. 그리고 그때 교회, 우리 소그룹에 김 자매님

이 와일드하거든요.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그런데 다가 오래 또 살아보니까 1년에 뭐 4천만원씩 전세 값이 올라가고 집값은 더 하잖아, 안 사 두면은 언제? 그래 가지고 그냥 샀어요, 힘들어도

이정민 씨는 “남편이 장기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관리를 하고, 아파트 신청은 본인이면 윤이 따라주었고, 교회생활을 잘 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 기증시기가 오르는 바람에 집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이정민 : 예. 그런데 강복은 그렇게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탄거죠. 두 번 다 탄 거예요. 그랬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연구자 : 아까 이정민 씨가 기여했다는 얘기 하시다가...

이정민 : 그게 기여한거죠. 제가 계기가 되어서. 제가 교회생활을 하면서 시댁에서 나가자고 해서 여길 온 거고 거기도 옮길 때. 내가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서 옮긴 것은 아니고. 누가 도와준 건 느껴요. 만약에 내가 교회생활을 안했으면 축복이 없었을 거예요.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가계부는 오늘날의 생활양식과 들어맞지 않는 것 같다. 매일매일 구매하는 물품의 수가 많고 기억해야 할 일이 많기도 하지만, 늘 부족한 예산을 생각하면서 그에 맞춘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였다. 제보자들은 ‘가계부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처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생활양식을 고수한다고 한다. 심희경 씨는 “가계부를 쓰면은 계산이 안돼요. 돈이 맨날 모자라니까 못 써요. 나는 어떻게 하나면 크게 지출될 거만 짝 쓰고 잡다한 거는 안써요.”라고 한다. 서진화 씨는 “가계부를 쓰면 시어머니처럼 살아야 한다. 시어머니는 받은 것을 적어 두었다가 반드시 그 것을 갚았는데 항상 적게

갚았다. 나는 가계부 쓰면 다른 사람을 대접할 돈이 아까워질 거 같다. 그래서 안 쓴다. 여유 있게 살기위해서”라고 한다.

또한 가계부 쓰는 것을 부인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는 남편들로부터 “가계부를 쓰면 왜 이렇게 돈을 썼냐고 혼나고, 가계부를 안 쓰면 안 쓴다고 한 번 혼난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돈을 벌어들인 사람의 궁극적인 감시를 전업주부가 받고 있다는 것이며, 남편은 재무관리권한만 이양했지 화폐소득은 자신이 벌어들인 돈이라는 의식이 여전히 강하고 총괄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 V. 전업주부의 소비행위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전업주부의 일상생활에서 소비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과제는 크게 ‘주거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지출계획에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그리고 ‘가족을 위한 소비와 나 자신을 위한 소비를 어떻게 자리매길 것인가’이다.

우선, 주거계획은 가족들이 살기에 적합한 공간의 크기와 배치 및 지리적 위치 등이 핵심인데, 주거계획은 모두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거하기에 적합한 동네를 선택하는데 주변의 학원들과 학교의 명성, 동네 아이의 수준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제보자 대부분 강남으로 이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의 압구정동에 살고 있는 최현지 씨와 김미현 씨는 ‘생활비부족’과 ‘주변사람들의 수준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각기 분당이나 강북으로 이사가고 싶다고 한다.

관찰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생활의 특성상 제보자들의 집은 대부분 어느 집이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월 소득이 1천만원에 가까운 제보자나 그 이상인 제보자의 경우에도

집의 평수가 다소 넓을 뿐 가구집기가 호화로운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리모델링할 때 맞춤형으로 들여온 대중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지출에서는 사교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른 모든 부분은 사교육비의 변동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주부들의 구매행동이 주말을 이용한 대형할인점쇼핑이나 평일 슈퍼에서 장보기로 규칙화되고 표준화됨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비는 어느 정도 고정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제보자들은 가족을 위한 소비를 결정하고 남는 부분을 이용하여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한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가족의 소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소비를 '무조건' 줄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예산에 맞춰 알뜰하게 살림하는 것이 가정관리자로서의 의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소비는 근본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자신을 위한 소비는 옷구매와 목관리를 위한 운동이 주를 이루었다. 양선희 씨는 친절과 시택이 모두 '극빈'이어서 돈을 '퍼주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격에 맞아 좋다고 한다. 즉 양선희 씨는 가족에게 줌으로써 자신을 만족시키는 스타일을 구사한다.

제보자의 이야기 가운데 스스로의 소비성향을 비난하면서도, 계속해서 소비를 지향하는 경우가 있다. 고현정 씨는 "한 달 월급을 받으면 계획을 세워보지만 중간정도 가면 도저히 안 맞으니까 그 때부터는 마구 써버리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산다"고 한다. 고현정 씨네 한 달 월급은 3백만원 정도이지만 시어머니는 고현정 씨 남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둔 것이 13억 정도이다. 고현정 씨는 "자산까지 포함해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

에서 사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고현정 씨의 자산은 아직 넘겨받은 것이 아니므로 고현정 씨 가족이 처분할 수 없다. 고현정 씨는 남편이 시어머니로부터 자산의 처분권을 얻어오지 못하는 것이 남편에 대한 유일한 불만이라고 한다.

고현정 씨는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이 대학 시절의 꿈"이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 시절 내내 열심히 멋을 부렸다고 한다. 그러나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옷 잘 입는 습관만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한다. 강현선 씨의 경우에는 남편의 소득은 높지만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은 '작아서 창피한 정도'라고 한다. 강현선 씨는 사교육비를 제외한 많은 부분을 옷을 사고 피부관리를 하는데 사용한다. 강현선 씨가 소비생활에 전념하게 된 계기는 결혼이며, 준거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경우이다. 그러나 강현선 씨 역시 자신은 '이월상품을 산다'든가 '남대문시장을 찾는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이 검소하게 소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업주부는 가정의 소비전문가이다. 양선희 씨는 "우리 남편은 자기는 못 저질러요. 그런데 저지르면 그 사람은 (따라)가요. '저지르길 잘 했어' 그러면서 (따라)가요"라고 말한다. 이는 소비부분에서 양선희 씨가 가족 내에서 전문성이 있다는 표현이다. 제보자들은 식품이나 공산품 등 일상적인 구매는 가족단위의 할인점 쇼핑이나 근처 슈퍼마켓을 통해 구매하고 선물이나 의류 등은 백화점에서 구매한다. 이와 같은 구매행위는 필수품과 사치품을 구분하는 통상적인 예)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주말을 이용한 대형 할인점 쇼핑은 외식 스케줄과 함께 가족공유시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부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캠프벨(1987)은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 부족함과 관련된 생활필수품과 보다 큰 자극을 경험하게 하고 즐거움을 주는 사치품의 구별은 두 개의 대조적인 인간행동의 양식"이라고 한다(Corrigan, 1997에서 재인용).

소비에 대한 남편의 관심사는 제한되어 있는데, 남편들은 주로 주말 골프에 시간과 돈을 들이고 자동차 구매에 관심이 많다. 양선희 씨 남편의 경우에는 '아이들이라면 꼬박 죽는데' 아내가 아이들을 학원에 실어 나를 때 좋은 차를 타도록 좋은 차를 사 주었고, 최근 돈을 잘 벌게 된 강현선 씨 남편은 BMW를 사고 그 전에 타던 LEXUS를 아내에게 넘겨 주었다. 그러나 정하진 씨 남편은 고소득을 버는 의사이지만 '워낙 물질에 관심이 없어서' 거의 폐차직전인 차를 타며, 옷도 신발도 떨어지기 직전까지 착용한다.

가족끼리 함께 하는 여행은 제보자들이 말 하는 가족소비행위의 대표적인 예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가족단위 해외여행을 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국내여행을 하였다. 이렇게 여행을 통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전업주부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넘어서는 경험을 제공하고, 전업주부와 자녀에게는 그 동안의 남편부재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결핍감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여행시간은 자녀의 교육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으로 잡는다.

서진화 씨의 경우에는 사교육 대신 해외여행에 수입의 일정부분을 배분하고 있다. 강현선 씨는 추석기간을 이용하여 평소 휴가시간을 내기 힘든 의사인 남편의 골프여행에 아들과 함께 가기로 하였다. 해외여행을 갈 때 쇼핑을 많이 하는지 묻자, 서진화 씨는 '다른 여자들은 보석 같은 것을 열심히 사지만, 자신은 가계에 보태기 위해 보석을 팔았다'고 한다. 서진화 씨는 쇼핑을 그다지 즐기지는 않고, 필요한 화장품업계에 종사하는 남편이 선물로 받아다주거나 해외여행에서 사다준다고 한다. 물론 명품 핸드백도 두세 개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강현선 씨는 해외에 나가기 전에 함

께 여행할 세 가족과 면세점에 갔다. "남편은 1백만원어치만 사도록 제한을 했는데 정작 이것저것 너무 사고 싶은 것이 많아 한도를 넘겨 눈총을 받았다"고 한다. 정하진 씨의 경우에는 친정에서 살 때 지금보다 훨씬 잘 살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남편이 소득은 높지만 불경기이고, 또 남편이 해외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해 불만이 누적되어 있다. 간혹 해외여행을 간 경우에도 남편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하진 씨가 사교육을 시키다 만난 비슷한 사람들에 의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자녀의 나이가 어린 고현정 씨와 심희경 씨, 최현지 씨와 김미현 씨는 해외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주제가 되지 않으며, 가족휴가도 바닷가나 산에서 보내고 여행에 관한 이야기에 흥미가 없다.

전업주부 제보자들은 사교육비나 주거에 관한 소비 그리고 가족여행과 외식에 관한 이야기 이외에 자기를 위한 소비행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우선 시간소비에 관해 살펴보자. 자녀들을 돌봐야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전업주부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자유시간 동안 강현선 씨는 옷을 사기 위한 쇼핑을 하고, 최현지 씨는 매일 아이들이 등교하여 하교할 때까지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한다. 서진화 씨와 윤미숙 씨는 주로 종교 활동으로 시간을 보낸다. 심희경 씨는 종교 활동과 운동을 한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둔 정하진씨는 혼자만의 시간이 없고 무슨 일을 하거나 휴식을 할 때에도 어린 아이를 돌보고 있다.

'옷'은 전업주부의 자기를 위한 소비에서 중요한 제품이다. 제보자들 가운데에는 거의 매일 옷을 사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울할 때 특히 남편 때문에 우울할 때 옷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 윤미숙 씨는 사업을 하는 남편이 술

집여자일로 괴롭혔을 때 생애 최초로 ‘한 벌에 70만원이나 하는 비싼’ 옷을 샀다. 이정민 씨는 남편이 일로 만난 ‘지적(知的)인 여자’ 이야기를 할 때 옷도 사고 서예도 배운 적이 있다. 최현지 씨 역시 ‘남편이 와이셔츠에 립스틱을 묻혀 술에 띄어 되어 온 뒷날’ 2,3십만원하는 옷을 샀다. 양선희 씨는 남편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때 일년에 한두 번 20-30만원하는 옷을 샀고 혼자서 술을 마셨다고 하였다.

특히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강현선 씨의 경우에는 대학 때부터 함께 멋을 내던 미혼의 여동생과 어울려 백화점이나 남대문시장에서 옷과 악세서리를 자주 산다. 강현선 씨는 옷을 사는 것이 ‘삶의 유일한 기쁨’이다. 강현선 씨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볼 때 제보자 중 자존감이 가장 낮고 물질주의 성향이 가장 강하다. 강현선 씨는 결혼과 동시에 의사인 남편의 친구들과 만날 때, 그 부인들과 자신을 비교하곤 했다. 강현선 씨는 “좋은 학교 나온 것은 중요하지도 않았고, 그 동안 의지해오던 외모도 뛰어난 것이 아니며, 친정의 경제적 사정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 “세련되고 화려한 감각을 따라 살고 싶은 것과 내면의 양식을 쌓으면서 살고 싶은 것”이 늘 강현선 씨에게 늘 병존해왔는데, “결혼과 동시에 내면의 양식을 버렸다”고 한다. 왜냐하면 내면의 양식은 다른 사람들과 강현선 씨를 효과적으로 구별지어주는 것이 못 되었다. 이후 강현선 씨는 외모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젊음을 붙잡기 위해” 옷을 구매할 때에도 젊은이의 브랜드를 찾고 있다.

강현선: 저는 쇼핑을 뭐 스트레스 받아서 간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가요. 옷 살 것이 없으면 바꾸기 위해서라도 가요 거의 매일 한 번은

연구자: 그러면 옷을 사실 때 기준이 어떤 거예요?

강현선: 예쁘고 나한테 어울리나 그거예요.

연구자: 그럼 주로 찾는 브랜드같은 게 있으세요?

강현선: 아 모르실 텐데. 아이들이 가는 데라. 그 뭐 나인식스나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많이 사고, 또 에고이스트라고 그런 데서도 많이 사고요. 그리고 좀 지나가다가 봐서 예쁘면 많이 사는 편이에요.

그에 비해 방송국작가로서 언제든지 직업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재 씨는 “아무리 우울해도 옷을 사지 않는다”고 한다.

제보자들은 ‘요즘 살이 찌고 있다’는 이야기와 ‘살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예외 없이 하고 있다. 다음 인용문을 보면 몸 관리에 대한 관심이 일상화되어 있고, 전업주부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39세의 나이로, 아이를 키우면서 운동을 통해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었다는 소위 ‘몸짱 아줌마’의 전국적 인기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몸‘관리’가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더욱 젊고 건강한 몸, 날씬한 몸, 또는 섹시한 몸을 목표로 삼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찾아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개인들에게는 몸 관리는 일종의 프로젝트이다. ‘관리’라는 단어가 암시하듯이, 인간의 몸은 더 이상 고정된 본질적인 속성을 갖는 자연적 실체로 인식되지 않는다. 몸은 시간과 금전을 투자해서 끊임없이 ‘재구성’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되고 있고 자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몸의 기능과 형태는 본인의 노력과 투자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개조와 개인이 가능한 유연한 대상이라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임인숙, 2002: 183-184).

몸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수용하면 몸관리 산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될 소지<sup>3)</sup>가 있다. 면접결과 대부분의 제보자는 상품사용이나 성형수술을 통한 외모관리를 직접 하였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보자들에게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수술하고 싶은가'라고 물으면 '절대 그렇지 않고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답한다. 이러한 대답 속에는 '여성성 가꾸기'가 다분히 자기만족이라는 점이 암시되어 있다.

## VI. 결론 ; 전업주부들의 일상적 살림살이에서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

지금까지 중산층 전업주부에 대한 참여관찰을 결들인 심층면접자료를 통해 일상적 살림살이에 포함된 가사노동 재무관리 소비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가사노동에서는 물리적 환경, 가사노동수행시간과 본인담당 및 도우미사용, 자율성, 표준설정, 밥하기, 가사노동에 대한 총평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재무관리에서는 절약성향과 노력, 금전관리 비율과 성격(남편의 감시, 책임과 부담감), 재테크, 가계부와 관련된 행동과 해석들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소비행위에서는 세 가지 과제 즉 주거계획과 지출의 중점정하기 그리고 자신의 소비와 가족의 소비사이 균형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가사노동과 재무관리 그리고 소비행위

에서 전업주부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잠시 논의해 보자. 요컨대, 가정관리자로서 전업주부는 가사노동에서 기본적인 가정환경의 유지를 말하는 청소와 설거지 빨래와 더불어, 인테리어나 요리, 재무관리, 재테크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다. 특히 식사와 관련하여 아무리 피곤해도 반드시 남편의 아침밥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과 자녀에게 인스턴트식품을 먹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전업주부에게 기대되는 일종의 압력이다. 제보자들은 자녀를 키우는 '일주일간의 힘든 여정'으로 인해 주말이 되면 밥하기가 싫어서 외식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외식비를 아낄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한 요리솜씨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특성은 맞벌이 가족의 경우와 대비된다. 연구자가 2005년에 행한 맞벌이 가족의 주부에 대한 심층면접자료의 분석 결과(김선미, 2005), 전업주부가족의 주부와 맞벌이 가족의 주부의 가사노동의 차이점은 분명한데, 크게 보면 취업주부의 남편이 기본적인 가사분담을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는데 비해, 전업주부의 남편은 가사노동의 부담에서 거의 면제되어 있다. 작게는 취업주부가족의 경우 주말에 가사노동을 몰아서 하고 특히 주중 소홀히 한 식사를 손수 해 먹지만, 전업주부는 일주일동안의 가사노동의 고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내가 주도해서 외식을 하기 원한다. 두 가지 형태의 가족에게서 보이는 차이점은 양적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가사분담의 차이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하겠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3) 이정민 씨는 남편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미인으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정민 씨는 자가 원하는 몸매가 아니어서 할 수 만 있다면 가슴을 풍만하게 하는 등의 수술도 하고 싶다고 한다. 최현지 씨와 김미현 씨는 친정엄마가 쌍꺼플 수술을 해 주었고 결혼 후 피부박피를 하였다. 김미현 씨는 코수술과 눈썹문신도 하였는데 남편은 '수술이나 했으니 결혼이라도 했다'라고 말한다고 하였다. 최현지 씨는 현재 치아교정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인상이 강해서 이 곳 저 곳 수정하고 있다고 한다. 강현선 씨는 피부 좋은 것이 자랑거리였는데, 피부가 나빠지자 자신감이 떨어져 매월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고 있으며, 보톡스를 해서 턱을 가름하게 하고 싶어 한다. 최현지 씨도 아는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 보톡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경험의 다양성까지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 자료에서 취업주부가족의 경우, 아내의 취업 상황변화에 따라 전적으로 가사노동을 책임지는 남편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 재무관리에서는, 도시 중산층 주부들이 모두 주어진 수입을 어떻게 하면 규모 있고 알뜰하게 운영하여 제한된 수입의 범위 내에서 가족원들의 복지를 극대화 할 것인가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문옥표, 1999)는 선행연구의 설명을 강화한다. 이 연구에서도 재무관리에 있어서 전업주부는 비교구매를 통해 값싸게 물건 사거나 월별 수지 균형 맞추기 그리고 재테크를 통한 물가상승 대처라는 부담과 더불어, 재정이 부족할 때 이를 조달해야 하는 부담도 가지고 있다. 제보자 가운데 친정에 가서 부족한 생활비를 구해오거나 '시어머니께 잘 보이기'를 통해 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우 그러한 부담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전업주부들은 모두 남편의 위임된 권한이 보여주는 한계 안에 갇혀 있었으며, 그 때문에 가장 적극적인 돌파방법으로 취업을 희망하기도 하였다. 특히 상징적 의미에서 취업을 강하게 희구하는 전업주부는 바로 위임된 권한의 한계를 크게 구속으로 느끼는 경우였다. 조혜정(1981 : 41)은 만약 재무관리를 잘 하고 성공적인 재테크를 통해 가계경제에 기여한 경우라 할지라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남편에게 의존된 전업주부가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필요불가결한' 존재로 느끼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소비행위와 관련된 전업주부제보자들의 공통주제는 자녀중심의 주거결정, 사교육 중심의 지출결정 그리고 가족을 위한 소비 속에서 자신의 분량이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장기분거가족 혹은 속칭 '기러기

가족'도 바로 중산층전업주부의 소비행위에서 이러한 자녀중심 주거결정 사교육중심 지출결정의 연속인 성격이 강하다. 즉 자녀의 신분 유지 혹은 상승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중산층 가족의 규범이 되고 있고,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부부 모두의 삶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 자녀의 교육인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부는 가족을 대표하여 자녀교육을 주도하고 대행한다. 조은(2004)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유의 기러기 가족은 '세계화의 주변국의 상대적 상층 가족이 세계화의 중심국에서의 유연한 시민권 획득을 위해 구사하는 가족전략의 결과'라고 해석한다. 실제로 면접당시 전업주부제보자들은 비강남권의 경우 강남권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며, 강남권의 경우 해외조기유학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전업주부가족의 자녀교육 중심성은, 기러기가족의 경우에서 나타난 분업형태- 즉 아버지는 화폐소득충당, 어머니는 나머지 모든 것을 하기- 를 잘 반영하고 있다.

전업주부에게 자신을 위한 소비는 주로 건강관리와 외모관리에 국한되는 것이었는데, 건강관리는 전업주부의 중요한 자산인 몸을 보존하는 것이었으며 외모관리는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이 위협받는 국면에 방어적인 것으로 주로 나타난다. 특히 의복의 구매는 취업주부의 경우 취업에 필요한 정당한 구매임과 달리,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일종의 개인적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전업주부에게 자신의 소비가 갈등이 되는 상황은 개인으로서의 여성성을 가꾸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에 부응하는 이상과 가정경영전문가로서의 책임이 상충하는 측면이다.

그런가하면 가족의 소비에 있어서 준거집단의 소비수준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수준을 맞추어야 하는 상황도 전업주부에게는 갈

4) 아내의 직장이 집에서 멀고 직장에서 요구되는 시간사용의 경직성이 큰 경우, 부부중심 핵가족의 해결책은 남편의 태도와 무관하게 남편이 가사노동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종종 관찰되었다.

등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업주부들은 지나치게 높은 표준을 부과하는 준거집단을 회피집단으로 규정하거나 그러한 높은 표준의 부당성을 다각도로 입증함으로써<sup>5)</sup> 사회·문화적 저항을 하고 있다. 즉, 가족의 계층적 소비경쟁의 전업주부는 일선의 전사로서 전략을 구사해야 자신의 존재가 증명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전업주부간의 다양성을 만들어 내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일상적 살림살이에서 보여주는 전업주부간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개인간 차이점을 만들어내어 전업주부문화 속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먼저 가사노동에서의 시간상 차이점은 자녀들의 학교시간과 남편의 출퇴근 시간 그리고 자신을 위한 건강관리시간이나 종교활동 시간과 같은 생활시간구조가 결정했고, 가사도우미를 활용할 자원이 있는가나 주부자신의 표준이나 건강상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표준 등도 가사노동의 성격에 영향을 주었다.

재무관리에서는 상당한 차이들이 관찰되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인 소양상 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소득의 크기나 친정에서 가져온 재산의 크기 등이 관찰 정도를 결정했으며, 재테크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가 아닌가는 이 분야에서의 남편의 상대적 관심과 능력 혹은 성공경험과 관련되었다. 그러나 재테크에 전업주부가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여유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시간자원은 가족의 재테크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에 활용되었다.

소비행위의 차이 역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사교육비 규모가 달라 초래되는 지출규모의 차이가 가장 극명했다. 그리고 자녀의 학령은

어느 지역에 사는가하는 것과 함께 주부의 준거집단에 영향을 주어 주부의 소비행위를 결정하고 있다. 가족의 특별한 소비로서의 여행은 소득의 차이가 결정하고 있다. 주부개인의 소비는 개인의 정체성을 따로 찾아야 하는 경우 외모관리나 의복소비를 통해 일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대소비자문화의 한 특징은(Lury, 1996) 바로 다중인성의 구현을 소비재를 통해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전업주부들의 경우 '지금 현재'의 내가 부정적으로 인식될 때, 그러한 인식을 회피하거나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잠재력이 있는 소비재는 화장품과 의복 피부관리 제품 혹은 성형수술서비스였다.

결국, 전업주부들의 일상적 살림살이에 대한 이 문화기술지는 전업주부들 간의 공통된 주제로서 가사노동과 재무관리 그리고 소비행위의 구체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한 편 그 속에 다양성의 스펙트럼과 그러한 다양성이 어디에서 연유하는가에 관한 자그마한 통찰을 제공하였다<sup>6)</sup>.

- 접 수 일 : 2006년 10월 15일
- 심 사 일 : 2006년 10월 18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11월 27일

## 【참 고 문 헌】

- 1) 김선미(2005).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방식을 통해 본 아동양육지원의 정책적 함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105-116.
- 2) 문옥표(1996). 가족내 여성지위의 변화, 정

5) 주관적인 것들이긴 하지만 고가의 촛지를 양심이 꺼리는 일로 규정하거나 조기사교육을 일반 엄마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치부함으로써 사교육서비스를 구매하는 다른 엄마들을 비난하는 방식 등을 활용함.  
6) 질적 연구의 논리를 따르면, 절대적 진리(the truth)를 규명하고자하는 양적 연구와 달리 부분적 진리(partial truth)에 만족한다.

- 신문화연구 19(2).
- 3) 윤택림(2002). 질적 연구 방법과 젠더:여성주의 문화기술의 정립을 향하여. 한국여성학 18(2), 201-229.
  - 4) 임인숙(2002). 한국사회의 몸프로젝트, 미용성형산업의 팽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 5) 조용환(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 교육과학사.
  - 6) 조은(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 싱글로벌 모자녀가족사례연구. 경제와 사회 64호, 148-171.
  - 7) 조혜정(1981). 부부간 권력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본 취업, 비취업주부의 연구. 한국사회학 15권, 37-47.
  - 8) 조혜정(1997). 한국의 가부장제에 관한 해석적 분석. 성, 가족, 그리고 문화 9(72). 서울 : 집문당.
  - 9) Andre, Rae저(1981). 한국여성개발원역(1987). 가정주부. 한국여성개발원.
  - 10) Celia Lury(1996). Consumer Culture, London: Routgers University Press.
  - 11) Peter Corrigan 저, 이성룡외 역(2000). 소비의 사회학. 서울 : 그린.
  - 12) John W. Creswel저(1998),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2005). 질적 연구 방법론, 다섯가지 전통. 서울 : 학지사
  - 13) Marie-Theres Koretz-Relin 저(2004), 김라합 역(2005). 주부와 돼지 혁명을 꿈꾸다. 서울 : 웅진지식하우스.
  - 14) Spradely J.P.저(1980). 이희봉 역(1996).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